

##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관한 연구\*

박 일 록\* · 이 은 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 A Study on the Sequence of Contents in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Pak, Il-Rock\* · Lee, Eun-He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Lectur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and to systemize its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Every time the official curriculum is updated, the suggestion that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zed never fails to come forth. Unfortunately, it's a fact tha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grounds to base this opinion on, and that adequate research has not yet been done in this particular field. Therefore, basic research must be performed in order to systematize the substance of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Keeping this in mind, the following study strives to find appropriate methods of conducting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while attempting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future organization and selection of content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materials have been sort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of all, what sort of concepts is being taught in the subject of clothing and textile, and are the chapters constructed so that different schools can maintain consistency among them?

Second, how has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been done so far, and is the contents correctly synchronized with the students' development?

Third, how is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utilized in real life, and has it actually been systematized in a way that encourages practical utilization?

This study has mostly been done through the research of various documental resources. Also, th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using the systematic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of obtained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the concepts of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school,

---

\* 본 연구는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었음

has not completely been systematized. Also, as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has not correctly synchronized with the students' development, and it has not actually been systematized in a way that encourages practical utilization.

Since this study has touched only limited research on the topic of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it is essential that further research covering a wider array of themes be done in the futur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제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간의 학교급별 차이에 따른 연속성이나 연계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 동안 교육내용 조직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5~6학년의 실과와 7~10학년의 기술·가정은 학교급별에 따라 교과와 명칭만 다를 뿐 교과와 성격, 목표, 지도내용 등에서 연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편성하였다(김정자, 1998; 허경철, 2000).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실제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다르게 조직되었다. 특히 의생활 교육내용의 경우 일부 학년에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거나, 내용구조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의생활 교육내용이 연계성, 계열성을 유지하도록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개정시 마다 가정과 교육을 계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계열화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의 계열화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만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의생활 교육을 위하여 영역별 교육내용을 계열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치관의 갈등과 생활방식의 혼란

을 경험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이러한 현재의 모습에 개방화, 정보화, 다양화를 한 층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것은 의류학 분야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증가됨으로써 바람직한 교과내용을 선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원칙과 가치에 의해 내용을 선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조직과 선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연구내용

의생활 교육의 계열화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의생활 교육에서 가르쳐 왔던 개념들은 주로 무엇이며, 초·중·고등학교간에 논리적으로 계열화되었는가?

분석과정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내용 중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해서도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의생활 교육내용을 주로 어떻게 학습하여 왔으며,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계열화되었는가?

학습자가 의생활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보다 논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에 실천하기가 용이해진다고 본다.

셋째, 의생활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열화되었는가?

이것은 의생활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학습됨으로써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유용성, 즉 사회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에는 의생활 교육내용

〈표 1〉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

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차	실과 4·5·6(1965년)	표준 중학가정 1·2·3(1965년) 즐거운 중학가정 1·2·3(1967년)	표준 가정일반(1969년) 즐거운 가정일반(1967년)
3차	실과 4·5·6(1978년)	중학교 가정 1·2·3(1979년)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1979년)
4차	실과 4·5·6(1987년)	중학교 가정 1·2·3(1987년)	고등학교 가정(1987년)
5차	실과 4·5·6(1995년)	중학교 가정 1·2(1993년)	고등학교 가정(1993년)
6차	실과 4·5·6(2000년)	중학교 가정 1·2(1998년)	고등학교 가정(1998년)
7차	실과 5·6 (전시용, 2001년)	기술·가정(전시용, 2001년)	고등학교 기술·가정 (전시용, 2001년)

\* 교과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에 제시하였음.

이 가정교과의 기본요구와 같은 내재적 원리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과 같은 외재적인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구성의 세 측면인 학문적·학습자·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교과서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집필된 초·중·고등학교 실과 및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실과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을 두었고, 가사교과는 중·고등에만 부분적으로 제시되거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통합되었으며, 7차 가정과학 교과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교과서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교과서 분석에는 체계적 내용분석(syst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을 채택하였다. 체계적 내용분석은 교육내용의 임의적 서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도순, 1993). 의생활 교육이 그 가치와 위치를 정립하려면 그 분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체계적인 이론은 우리가 교육현상을 바르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

였다.

학습자에 대한 분석은 의생활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론 또는 조사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요구에서는 의생활 교육이 학생들에게 생활의 적용면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대한 교육적 정의

교육과정의 구성은 크게 영역(scope), 계열(sequence), 통합(integration), 연속성(continuity), 균형(balance), 연결(articulation), 정합성(coher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경섭, 1999). 여기에 Schrader(1972)는 계속성·나선성·일관성·통합성을, Anderson(1971)은 공통성과 진보성을, Briggs(1967)는 수직적·위계적·평면적 구조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성호(1985)는 계열성, 계속성, 범위, 통합성, 균형성을, 이경섭(1996)은 위계화, 계열화, 통합화를 주장하였다(Posner, 1974; 이경섭, 이홍우, 김순택, 1990; 전성연, 1998). Tabe(1962)는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의 영역(scope), 계열(sequence), 통합(integration)적인 조직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전주의적 교육과정 이론가인 Tyler(1949)는 교육내용 조직의 원칙으로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계열성(sequence)은 학습경험의 수직적 조직에 요구되는 원리로서, 같은 내용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학습 경험 수준을 높여 폭넓게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Tyler, 1949; 이종승, 1988). 교과 특성 따라 다르지만 Tyler가 주장하는 계열성 원리에 의한다면 교육내용은 학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폭넓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열성은 교육내용의 종적 구조인 계속성과, 횡적 구조인 통합성의 원칙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조직할 때 교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원리는 학년별, 학교간에 반복되어야 한다. 이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끼리는 위계화하거나 서로 같은 것끼리 통합한다. 관계가 없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누가되도록 하거나 새로이 부가해 간다. 이렇게 교육내용이 모두 조직되었을 때 가장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폭은 넓어지면서 깊이가 점진적으로 되는 나선형 조직이 되는 것이다.

Posner와 Strike(1976)는 교육내용의 계열화 원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해야 할 현상, 즉 사람, 사물, 사건간에 놓인 경험적 관계를 찾는다. 둘째, 학습해야 할 내용의 개념적 속성을 계열화한다. 셋째, 명제나 개념의 탐구과정의 계열화를 확인한다. 넷째, 학습과정 또는 학습원리에 일치되도록 계열화한다. 이것은 심리적 계열성으로 선행학습과제, 친숙도, 곤란도, 흥미, 내면화 수준, 발달수준 등에 기초하여 계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계열화한다. 이 방법은 학습한 내용을 사용하게 되는 절차와 사용하게 될 예상빈도 등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내용조직에서 계열화는 특정 학문내용의 본질적 구조, 즉 지식의 구조와 학생 개인의 심리적·내면적 사고과정, 즉 탐구과정을 중시하면서 나선형 조직으로 하는 종합적 원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의생활 교육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정과 교육 자체가 가정학의 모든 영역의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편견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간에 어떤 범위로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학습할 양은 많아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왜 의생활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은희와 전경란(1994)의 연구에서도 제1차에서 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 교육내용 체계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의생활 교육목표에 비해 수준이 높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중학교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교간, 학년간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여 체계적인 조직이 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의생활 교육을 단지 학교급별로 반복 시행하는 데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계열화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계열화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학자인 Bruner(1960)는 교육내용을 '지식의 구조'로 보았다. 지식의 구조란 그 학문 또는 교과의 '일반적 아이디어', '기본 개념 및 원리', 그리고 '핵심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지식의 구조를 교육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있는 어떤 객관화된 지식의 구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열성의 의미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에 잘 나타나있다. 달팽이 껍질의 선을 하나의 교과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점점 크게 돌아 나오는 것은 교과내용의 폭과 심도가 더해지는 모양에 비유되며 이것이 바로 계열성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선형 교육과정은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 태도, 사고방법 등이 학습자의 발달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지적 성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점점 세련된 형태로 가르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을 비추어볼 때 비록 초등학교 실과, 중·고등학교는 기술·가정으로 다른 교과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수준을 통틀어서 가르쳐야 할 의생활 교육의 동일한 개념, 원리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Bruner(1960)와, 교과에 있어서 '지식의 구조'를 주장한 Schwab(1964)과 King, 그리고 Brownell(1966)은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의 이론을 접목시켜보면 학습자는 의생활 교육의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각 기본적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실들을 모두 학습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의생활의 모든 내용을 동시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개념과 원리를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그 개념과 원리를 전체적 구조 속에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 교과내의 내적 구조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Hirst(1974)도 지식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지식은 자기 중심개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각 형식의 중요 개념들은 경험과 관련되며 자기 독특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 셋째, 각 형식은 경험을 특수한 준거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넷째, 각 형식은 경험을 각각의 준거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제까지 의생활 교육에서 가르쳐왔던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Ⅲ.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

#### 1. 의생활 교육에서 가르쳐왔던 개념들은 주로 무엇이며, 초·중·고등학교간에 논리적으로 계열화되었는가?

우리 나라 교육사상(教育史上) 의생활 교육에서부터 가정과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초등학교 실과에 속하는 교과목을 근대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고종 32년(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재봉'이 포함되고 부터이다(이은희, 2000). 그 후 초기 학교교육에서의 의생활 교육내용은 주로 옷 만들기과 보관하기 등 여성이 가정내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은 생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교육내용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의 내용선정을 위한 일정한 틀, 즉 이제까지 교육과정의 조직요소로 쓰였던 주요 개념들을 파악하면서 가정교과의 특성과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5차 교육과정기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화경(1994)은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 할 의생활 교육내용의 주요개념을 국내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43개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에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요구도가 가장 낮은 개념은 '한복 만들기'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옷

만들기의 기초와 응용', '의복의 재료', '의복의 손질과 보관', '의복의 수선', '바른 차림새', '의복 마련하기'의 4단원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바른 차림새' 단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자수' 단원이 가장 요구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적합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임애용과 윤인경(1994)의 연구에서도 '한복·양복 입는 법'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동양자수의 기초'가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남녀 중학생과 그의 부모의 의생활 교육내용 필요도에 관한 황선자와 정영숙(1995)의 연구에서도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배운다'가 가장 높았고, '주머니 만드는 것을 통하여 바느질이나 재봉틀을 다룰 수 있도록 배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현숙과 조필교(1995)의 연구에서 중학교 교사들은 '올바른 옷차림'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른 차림새' 단원은 실제적으로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많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간에 기본개념에 있어서도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남녀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복구매 및 세탁 보관방법', '디자인 선택과 옷 입는 방법'순으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복 만들기'가 낮게 나타났다(이금남, 김행자, 안영희, 이남기, 1996).

교육과정에서 내용은 목표를 달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학습활동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관련시켜 고찰할 경우, 교육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내용 중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의생활 교육에서는 주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내용 다루어왔으므로 교육내용 또한 생활의 구조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생활 내용은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단원내용으로 대부분 제시되어 왔다. 초·중·고등학교 실과 및 가정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의생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추출하여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검토는 의생활 교육의 주요개념이 실제로 교과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제시된 의생활 교육내용은 크

게 피복재료, 피복구성, 피복관리, 의복차림, 복식사, 자수, 편물, 의생활 기기, 피복경제, 의생활관련산업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된다(가사·실업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의상과 자수를 따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단정한 옷차림, 간단한 바느질하기, 의복의 손질과 보관의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나머지 내용들은 도덕, 사회교과와 같은 타교과에서 제시되었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10개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었다(복식사에 관련된 개념은 주로 가사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 의생활에서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의생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의 의생활 개념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교 의생활 교육은 기능중심의 내용으로 조직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중등교육과는 같은 계열이라고 하기에 체제적이지 못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는 실생활에 필요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의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일상생활에 창의적으로 영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개념들의 계열화는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구성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에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2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 제시된 개념들이 거의 초등학교에서도 제시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학을 하지 않아 초등학교 단계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의생활에 필요한 일을 경험하기보다는 바느질 교육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개념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도시락 주머니 만들기(2차), 앞치마와 머릿수건 만들기(2차), 받침 만들기(3차), 주머니만들기(3차), 걸레만들기(4차), 도시락주머니만들기(4차), 덧소매만들기(4차), 휴지주머니만들기(6차), 덧소매만들기(6차), 방석만들기(6차), (끝을 오므리는) 주머니만들기(6차) 등이다. 7차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바늘로 만들기'단원에서 부직포로 디스켓 주머니만들기, 직물로 (끝을 오므리는)주머니만들기가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 주머니 만들기로서, 초등학교에서는 간단한 바느질하기로 주머

니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중복되고 있다. 일부 내용에서는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의생활 교육에서 바느질로 무엇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가'보다는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생활에 바느질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기본개념들이 제시되었다면 더욱 효율적인 의생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의생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려는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의생활 교육내용 선정에 기초자료가 될 의생활 기본개념을 '의생활에 대한 이해', '의생활에 대한 가치', '의생활에 대한 태도', '의생활에 대한 실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까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생활에 대한 이해와 가치보다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개념들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생활에 실천이 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Glaserfeld와 Vygotsky가 제시한 것처럼 지식은 고정되고 불변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생성자(또는 이해자)에 따라, 또한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교사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 지식도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에게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수용된다는 것이다(황윤환, 1997, 1998).

따라서 예전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한 암기 위주의 교육이나 교과서에만 의지하는 지식 전수 위주의 교육으로는 미래를 효율적으로 대비한다고 하기 어렵다. 수많은 정보원을 통해 필요한 지식 정보를 스스로 찾아 배워갈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길러 주는 것, 삶에 적합한 자기 지식을 창조해 나가도록 안내 해주는 것,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의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생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표 2〉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교과서에 나타난 의생활교육의 주요개념

구분		의생활 교육 주요개념	
		영역	주요개념
초등학교	4학년	바느질과 수예	단정한 옷차림, 단추달기, 손질하기, 인두질, 옷입는법, 양말집기
	5학년	깨매기, 깎기, 얼룩빼기, 비누빨래, 말려서 손질하기, 풀하기, 다림질하기	나의 몸차림, 깨끗한 몸차림, 빨래(빨랫물, 비누, 풀하기, 다리미질, 다리미 종류), 단추달기, 도시락주머니만들기(바느질의 기초, 만들기), 양말집기
	6학년	마름질하기(앞치마, 머릿수건), 박음질하기, 감치기, 앞치마, 머릿수건등 만들기(현옷으로), 단추구멍만들기, 아기양말짜기, 면직물의 물감들이기	현 옷 살려쓰기, 옷의 종류와 옷감, 앞치마와 머릿수건 만들기, 재봉틀쓰기, 아기양말뜨기, 물들이기
제 2 차 중학교	1학년	옷차림	옷은 왜 입게 되었을까, 보건위생상, 용의상,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 정결한 몸, 아름다운 말씨와 공손한 태도, 알맞는 옷차림, 소지품
		옷감	무명·삼·비단·털의 특징과 다루는 법
		재봉의 기본적 지식 기능	재봉하는 데 쓰이는 용구, 재봉할 때의 주의, 실 매듭, 기초봉, 에이프린 만들기
	2학년	옷의 손질	교복의 손질법, 얼룩빼기, 빨래하기, 빨래 준비, 빨래하는 법(무명), 표백하기, 푸새와 다리미질.
		옷다루기	우리의 옷감은 어떠한 섬유로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섬유의 감별법
		재봉틀다루기	재봉틀쓰기와 손질
		옷만들기	치마허리, 아동원형제도, 팬티, 블루우머, 슬림, 블라우스
	3학년	빨래와 정리	세탁, 의복의 보관
		옷관리	.
		의생활 향상	의생활의 계획, 가족의 의복 실태 조사, 가족의 의복 신조, 수선, 재생 계획, 의복 손질, 보관 계획, 효과적인 의생활, 피복재료의 선택, 피복 제작의 능률화, 피복 정리 보관의 개선
고등학교	의생활 관리	.	
	옷만들기	양재, 원피이스 드레스 만들기, 슬랙스 만들기, 한재, 통치만 만들기, 겹저고리 만들기	
	의복의 목적	.	
	의복의 원료	각종 섬유의 모양과 성질, 섬유의 감별법, 실, 직물, 편물, 레이스, 우리나라의 피복재료 사정	
	직물과 의복	.	
	피복관리	피복의 정리, 피복의 보관관리	
	앞으로의 의복생활	.	
의복만들기	한복만들기(여자옷-삼회장 저고리·여자 적삼과 개량 적삼 및 바지·스란치마·버선, 남자옷-남자 바지 저고리, 작업복 작업복 바지·반소매·작업용 풀치마)		

\*제2차 교육과정기는 1963년~1974년

구분		의생활 교육 주요개념	
		영역	주요개념
초등학교	4학년	일상생활에서의 옷입기와 손질하기	단정한 몸차림. 몸차림과 속옷갖추기. 옷을 바르게 입기. 옷의 손질. 옷의 정리
		단추달기. 걸레만들기 등 간단한 바느질하기	간단한 바느질. 바느질의 기초(재봉용구 갖추기 용구의 사용방법. 받침만들기). 단추달기
	5학년	빨래용구. 세제의 종류 및 분량. 속옷 등의 빨래. 다리미의 종류 알아보기. 천에 따라 올바르게 다림질하기 의복의 간단한 수선	의복의 손질과 보존. 얼룩빼기. 빨래준비. 빨래하기. 푸새와 다림질. 의복의 간단한 수선(바늘, 실. 기본 바느질. 얇아진 곳 고치기. 구멍이 뚫린 곳의 수선. 찢긴 곳의 수선)
	6학년	옷을 계획성 있게 마련하기. 바느질하기. 옷감의 성질과 쓰임새	의생활의 계획. 계절이 맞는 옷차림. 옷을 입는 방법. 의복의 계획. 주머니만들기. 옷의 보관
제 3 차 중학교	1학년	옷차림	옷의 기능. 나의 옷의 종류와 용도. 단정한 몸차림. 옷의 용도에 맞는 옷감. 옷감의 종류. 섬유제품의 간단한 감별법. 옷의 선택
		평상복의 손질과 수리	평상시의 옷손질. 옷의 보관. 옷의 수선
		앞치마 만들기	재봉용구의 선택과 사용법. 손바느질의 기초. 바느질의 시작과 끝맺기. 프랑스 자수의 기초. 재봉틀부리기. 앞치마만들기
	2학년	빨래	옷에 묻는 때의 종류. 세탁의 원리와 방법. 세탁용수와 세제. 세탁용구. 섬유제품의 취급법. 빨래하기. 후처리법
		옷의 수리와 재생	옷의 손질과 수선계획. 의복 손질하기
		스커트만들기	스커트의 모양과 용도. 옷감고르기. 스커트의 제도. 개더 스커트 만들기
	3학년	옷의 선택	생활과 옷. 옷의 종류. 옷의 선택과 디자인
		옷감	옷감의 원료로 쓰이는 섬유. 섬유의 종류와 성질. 옷감의 직조와 가공
		옷과 옷감 사들이기	우리나라의 의류사정. 의류제품의 유통과정. 의류구입과 의류비 문제
		블라우스만들기	옷본의 치수 조정. 블라우스의 제도. 마르기. 시침바느질과 보정하기. 바느질하기
		수예	수예의 재료 및 용도. 서양자수의 기초와 응용. 코바늘뜨기의 기초와 응용
		옷과 생활과의 관계	
고등학교	가족의 의생활	의복의 기능과 변천. 몸차림	
	의복재료의 선택	섬유와 실. 옷감의 성능과 종류. 의복재료의 생산과 소비. 전망	
	의생활경영의 능률화	의생활계획. 의복의 구입 및 활용. 의류정리	
	의류제작	의복 디자인의 원리. 양복의 재단과 봉제(베스트만들기. 슬랙스만들기. 양복의 수리와 개조). 한복의 재단과 봉제(치마만들기. 저고리만들기. 한복의 수리와 개조). 수선과 개조	

\* 제3차 교육과정기는 1974년~1983년



구분		의생활 교육 주요개념			
		영역	주요개념		
제 4 차	초등학교	4학년	생활환경의 정리(옷장정리). 기초바느질. 옷입기와 손질하기. 낭비 없는 의생활 단정한 몸차림 옷의 종류와 입는 순서. 옷 모양 바로하기. 옷 손질하기. 간단한 바느질, 걸레만들기, 단추달기.		
		5학년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깨끗한 몸차림), 간단한 바느질. 빨래하기. 옷감의 품질 집안일 돕기 빨래하기(빨래의 중요성, 세탁기호, 물과 세제, 속옷빨기, 얼룩빼기), 주머니만들기, 여러 가지 주머니, 도시락 주머니 만들기		
		6학년	의생활의 계획, 헌 옷의 재생, 의복의 선택과 구입 알뜰한 옷 마련 옷마련의 계획, 옷과 옷감의 유통, 기성복고르기, 헌 옷의 활용(헌 옷을 이용하는 방법, 덧소매만들기)		
	중학교	1학년	옷차림	옷의 기능, 나의 옷, 단정한 몸차림	
			옷감	옷감의 생산과 유통, 옷감	
		2학년	앞치마만들기	모양과 감 고르기, 제도과 마르기, 바느질하기	
			의복 마련하기	의복계획, 의복의 선택, 재봉틀 사용하기, 스커트만들기	
	고등학교	2학년	의복 견사하기	세탁, 의복의 수선	
			의생활의 의의	의복의 기능, 의생활의 발달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의생활 자원의 실태, 의류의 유통과 소비	
			의류재료	섬유의 종류와 성능, 실과 옷감, 기타 섬유제품(침구, 커튼, 카펫)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복 디자인, 용도별 옷의 선택, 옷만들기(남자한복바지만들기, 베스트만들기, 어린이옷 만들기), 옷입기	
	제 5 차	초등학교	4학년	기초바느질	간단한 바느질, 바느질 용구, 바느질의 기초(바느질 자세, 받침 만들기)
				옷입기와 손질하기	단정한 옷차림, 몸차림과 속옷입기, 옷을 바르게 입기, 옷의 손질과 정리, 검소한 의생활
			5학년	빨래하기	집안일 돕기, 빨래하기
옷감의 품질				주머니만들기, 주머니의 쓰임새와 모양, 휴지주머니만들기	
6학년			헌옷의 활용	만들어 쓰는 기쁨, 덧소매만들기	
			의복의 선택과 구입	합리적인 소비생활, 의복의 선택	
중학교		1학년	옷차림	의복의 기능, 옷의 종류, 옷입기	
			옷감	섬유의 종류, 실의 종류, 옷감의 종류와 특성	
		2학년	생활용품만들기	주머니만들기(모양과 재료고르기, 본뜨기와 마름질하기, 바느질하기)	
			의복 마련하기	의복계획, 기성복의 생산과 구입, 디자인의 선택, 의생활기기(재봉틀, 다리미, 세탁기, 건조기), 스커트만들기(개더스커트만들기)	
고등학교		2학년	의복 견사하기	세탁, 후처리와 다림질, 보관.	
			섬유의 종류	섬유의 성능, 섬유의 종류, 섬유의 감별법	
			실과 옷감	실의 종류와 굵기, 옷감의 성능과 종류, 기타 섬유제품	
			인체생리와 의복	의복과 인체 생리, 의복과 기후조절, 의복과 위생	
			의복디자인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원리, 개성과 디자인	
	옷만들기		파자마만들기, 남자 한복 바지만들기.		
	의복구매		의복비 계획, 의복 구매계획, 용도별 옷의 선택계획, 코디네이션 계획, 의복 구매, 옷의 분류와 활용		
세탁 및 간수	세탁, 얼룩빼기, 의복 간수하기				

\* 제4차 교육과정기는 1983년~1990년 \*제5차 교육과정기는 1990년~1995년

구분		의생활 교육 주요개념		
		영역	주요개념	
제 6 차	초등학교	3학년	옷개기, 걸기, 보관하기 옷차림 바르게 하기	단정한 옷차림. 옷 바르게 입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하기, 옷 정리하기
		4학년	바느질(홈질)로 용품 만들기	간단한 바느질하기 바느질 준비하기. 홈질로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휴지 주머니 만들기, 덧소매만들기)
		5학년	바느질(박음질, 단추달기)로 용품 만들기	간단한 바느질하기 박음질 익히기. 박음질로 용품만들기(방석만들기, 주머니만들기), 단추달기
	중학교	1학년	의복의 의미, 상황과 의복	의복에 대한 이해. 옷과 생활. 옷의 역할. 용도에 따른 옷의 종류와 특징. 우리들의 옷. 의복의 의미
			의복의 착용법	상황과 의복, 옷입기, 한복입기, 양복입기, 옷차림과 몸가짐
			소품만들기	주머니만들기(주머니의 종류와 구상, 본뜨기, 천준비, 마름질하기, 바 느질하기). 나의 보조가방, 옷 구성의 기초, 옷덧개 만들기
		2학년	의복계획	의복계획, 의복과 경제, 의복 마련 계획, 손질과 보관, 의복의 디자인
			섬유의 혼용률, 취급, 치수의 표시	의복의 여러 가지 표시, 섬유와 옷감, 의류제품의 취급표시와 공인 마크, 의류제품의 치수와 호칭, 기성복의 구입, 의복의 품질
	기성복의 마름질, 바느질 평가	의복(기성복)의 마름질과 바느질 평가, 의복 구입하기, 옷의 손질과 보관.		
고등학교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의 선택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아름다운 옷차림을 위한 의복디자인, 의복선 택,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의복의 역할과 올바른 선택, 의생활 계획 과 구매, 의복의 모양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려면, 의복의 생산과 유 통, 의복의 기원		
	옷감의 섬유, 조직, 가공과 의복의 성능	의복재료, 섬유, 실과 옷감, 인체 생리와 의복, 의복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염색과 가공, 일룩빼기, 옷감의 형성과 종류		
	의류의 세탁과 보관	의복관리, 세탁, 다림질, 의류의 보관		
	의복구성 기초, 간단한 의복의 제작	옷만들기, 의복구성의 기초(스커트만들기, 슬랙스만들기), 한국의복구 성(남자바지만들기), 서양의복구성(베스트만들기, 잠옷만들기, 파자마 만들기, 작업복만들기)		
제 7 차	국민 공동 기본 교육 과정	5학년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생활 환경 정돈하기	손바느질, 부직포로 만든 주머니, 직물로 만든 주머니, 스킨자수로 만 든 방식, 대바늘로 목도리 뜨기, 코바늘로 손가방만들기, 옷장정리하 기
		6학년	재봉틀다루기	기초박기,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8학년	의복마련과 관리	우리들의 옷차림, 옷의 역할, 옷입기, 의복 마련하기, 섬유와 옷감의 이해, 옷의 손질, 옷의 세탁, 옷의 간단한 수선, 옷의 보관, 옷 만들기 와 재활용(소매없는 상의나 반바지 만들기)
		10학년	가정생활의 실제(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간단한)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방석만들기, 쿠션만들기, 탁자보만들기, 커튼만들기, 베개 커버 만들기, 식탁보만들기, 냅킨만 들기, 가방만들기,

\*제6차 교육과정기는 1995년~2000년 \*제7차 교육과정기는 2000년~현재

2. 의생활 교육내용을 주로 어떻게 학습하여 왔으며,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계열화되었는가?

계열성의 원리에서 보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내용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선수학습, 혹은 인지발달 단계와 관련되어야 하고, 이전 내용보다 깊이와 넓이가 더 심화·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순서, 교사의 선호, 학문의 구조, 학습자의 흥미, 학습위계, 발달단계도 포함된다. 여기서 학생들의 흥미는 학습자의 요구와 발달단계에 따라 신중하게 연구해야 한다.

Gagnè(1970)는 학습한다는 것은 학습능력을 누적적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복잡하고 일반적인 학습능력을 기르기 전에 더 단순하고 구체적인 학습능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그는 학습위계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Reigeleuth(1995)는 Gagnè의 위계적 계열화 방식은 학습내용을 하위 영역으로 분할하여 단절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바람직한 인지구조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Gagnè의 모형은 학습과제를 보는 독특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Case(1975)는 보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과제의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igeleuth(1995)의 통합적 계열화에서는 학습자의 인지구조변화를 중시한다. 이 두 이론에서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의생활 교육에 적용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Gagnè의 위계적 계열화에서는 '의생활의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학습자가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보다 단순한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한다. 이와는 달리 통합적 계열화에서는 '만일 의생활 교육에 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겠는가?', '만일 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의생활 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을 더 포함시키겠는가?'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용의 정교화 수준을 더해 간다는 것이다. 계열화를 위한 단계로는 의생활 선수학습 요소의 계열, 학습자의 동기유발, 학습내용 구조의 통합적 이해 등을 강조하고 있다.

Havighurst(1953)의 발달과업 이론은 교육내용을 계열화하는데 기본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발달과업은 교육과정 계획에서 특정 학습과제가 가장 잘 가르쳐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갖는다. 계열성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교육내용을 통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냐이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사고에서 요구되는 수준 관점에서 각 학습기회를 분석하고 나서 학습자가 이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달의 계열을 학습기회의 계열과 관련짓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의 요구, 흥미, 사고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흥미와 개념에 걸쳐 모든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를 6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Piaget은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와 '아동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를 알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년간의 그의 연구는 '지적 발달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교류에 의해 생기는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다. 즉,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끊임 없이 자신의 환경과 교류하며, 이 과정에서 지식이 창조되고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즉시 이해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식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Piaget & Inhelder, 1969, 1973).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쌓아 가고, 경험이나 신념, 가치, 사회문화적 역사, 또는 기존 인식들이 인지구조의 한 단위인 인지 도식(schema)을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들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이라는 적응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확장되며, 보다 정교해진다( Piaget & Inhelder, 1973). 인지발달은 동화에 의해 인지적 갈등이 생기면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적 평형(equilibrium)을 이루면서 환경에 적응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라 하겠다.

Piaget의 인지발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들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실제에 관한 해석을 달리한다. 둘째,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동화와 조절의 적응 과정이 일어나는 활동과 상황에 의해 인지 발달이 촉진된다. 셋째, 학습 자료와 학습 활동들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 활동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도전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자들에 제시한 이론에서 볼 때 의생활 교육에서 계열성의 위계적 모형이 갖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입증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이론에서도 실제적인 교육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우리 이들의 구체적인 발달단계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단계 이론을 교육과정의 계열성으로 적용시키느냐에 관해서는 선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실과 교육내용 중 만들기 영역을 분석한 정미경(199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바느질 교육내용이 Piaget의 인지발달 구조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넓이의 보존개념을 많이 경험시키고 유클리드 기하, 위상 기하, 길이와 보존개념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중학교의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해당 단원의 내용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장현숙와 조필교(1995)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발달수준에 가장 적합도가 낮은 의생활 교육내용은 '재봉틀 사용법'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의복제작기술 습득', '의복구성원리이해', '의복재료의 성능이해'도 비교적 발달수준의 적합도가 낮은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중학교에서도 적합도가 낮은 내용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재봉틀을 사용한 바느질법'이 제시되고 있다. 더구나 다른 학년에서는 다루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8학년)에서만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이용하여 의복의 제작, 수선, 재활용'을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분할하여 단절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저하시키고 바람직한 인지구조 형성을 방해한다고 한 Reigeleuth(1995)의 계열화 원칙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이 단계별로 모두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쉽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내용을 계열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중학교 단계보다 인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족한 시간에 비해 의생활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단순한 주입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의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습자의 심리적·내면적 사고과정에 융해된 의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생활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서 '학습자의 실

천적 경험을 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생활 교육에 대한 흥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발달단계에 따라 특정 주제나 내용의 심층적 이해에 적합하며 학습자의 탐구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의생활 교육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울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 3. 의생활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열화되었는가?

Brown(1978)은 가정과에서의 지식은 알아야 할 것(내용)과 알아가야 하는 방법(과정)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은희와 채성현(1998)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즉, 인간의 변함없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걸쳐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주적인 인간육성과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현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정생활 및 사회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며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생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의생활 교육내용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열화되었는가?

사실상 이제까지의 의생활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가정과 영역 중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임애용, 윤인경, 1994; 황선자, 정영숙, 1995).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인지도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생활에 유용하기보다는 단순히 기능위주로 진행되었다는 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

Dewey(1916)는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에서 생활의 필요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들은 생활에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생활이 도야되고 혼련된다고 하였다. 그의 이

론에 비추어보면, 의생활 교육은 직·간접적으로 생활과 연관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생활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흥미 있고 동시에 창의적으로 응용·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내용의 유용성의 문제는 1960년대 중반이후 우리 나라에 소위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이 도입되었던 제2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다(문교부, 1963). 휴머니즘(Humanism)으로 먼저 불려졌던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서의 유용성은 생활의 유용성, 생활에의 유익, 효용을 의미하였다(김재만, 1996).

생활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중학교에서 지식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서 실생활과 관련된 실업교과 요소를 지닌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의생활 교육내용이 구성되고中等교육의 후기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실업교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 가정교과의 체제에서 벗어난 6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주로 전자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구성되었다.

실업·가정에서의 가정과 교육은 실업분야의 과목들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가 요즈음에는 생활교과로서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실과는 본래 실업교과의 성격을 지닌 직업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의 모든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제4차 교육과정부터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생활 내용으로 바뀌면서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에 대한 유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실과가 단순히 직업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기능교육이 아니라, 인간생활을 윤곽하게 이끌기 위한 교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과는 각 교과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실제 생활로 전환시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라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과정 변화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의생활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학습의 주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이고도 탐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하여 현실생활과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생활태도를 기쁨으로서 국민적 기본교양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의생활 교육내용에서 본다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생활과 다르게 진행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재봉틀의 경우 현재 재봉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가정이 대다수로 기초 생활 통계 목록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가정 이외의 생활 공간에서 재봉틀로 바느질을 경험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물론 기본 바느질에 대한 이해수준에서 재봉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다보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 학습자, 학부모에게까지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활에의 실천이다. 인간은 단순히 충동적, 습관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지성(creative and criticize intelligence)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 더 나아가 생활에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한다. '생활의 필요로서 교육'을 강조한 Dewey(1916)는 생활의 내용과 방법을 논하며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내용과 방법을 찾고 익히자고 주장하였다.

Brown과 Paolucci(1979)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천적 추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단순화나 기계론적 결정 등으로 빠져 버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실천적 추론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천적인 추론은 보편적이고 과학적 연구에서와는 달리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증법과 같이 절차가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즉, 실천적 사고의 과정속에서 위의 행위들은 계속되는 다음 단계들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론과정의 한 부분이 다음 과정과 연결되기 전에, 혹은 이전단계의 초기의 행위들과 연결됨이 없이 완성되는 것만도 아니다. 실천적 추론의 구조는 매우 포괄적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판단에 기초해 있는 이성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성들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추론이 있다. 의생활 교육의 계열화에 이러한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이 직·간접으로 생활과 관계되어야 하며 실천을 통하여 만족하고 발전될 때 진정한 계열화는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생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학습자가 생활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연구할 교과교육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교과교육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생활을 충분히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의생활 교육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때 보다 생활에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생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V. 결론 및 제언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먼저 의생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의 실과,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기술·가정)의 교과목을 정리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시간 내에 교과목을 정리하여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 합당한 의견을 낸다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교육과정 내용구성의 세 측면인 학문적·학습자·사회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보았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실과 및 가정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바느질하기, 옷차림, 의복의 손질과 보관에 대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피복재료, 피복구성, 피복관리, 의복차림, 복식사, 자수, 편물, 의생활 기기, 피복경제, 의생활관련산업 10개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생활 개념들은 초·중·고등학교간에 논리적으로 계열화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에 중복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의생활 교육내용은 바느질을 포함한 주로 기능위주로 학습하여 왔으며,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계열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만 인용할 뿐, 교육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이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다른 나라 학자가 주장한 발달단계 이론을 교육과정의 계열성으로 적용시키느냐에 관해서는 전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제까지의 의생활 교육내용이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가정과 영역 중 의생활 영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계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오히려 생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보다는 현재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의생활 교육이 실시되는 교육환경, 학습자의 발달단계, 학습내용을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등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다. 첫째, 의생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환경에 적용하고 연구할 교과교육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야 하겠다. 행정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받는 교과교육전문가들의 연구는 이제까지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를 포함한 가정과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생활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계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의생활 교육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생활 교육의 계열화를 위하여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신주 외 6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장왕사.  
 강한월 외 6인 (1966). 즐거운 가정 일반교과서. 신구문화사.  
 강한월 외 6인 (1966). 즐거운 가정일반 교과서. 신구문화사.  
 교육부 (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95).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98).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2000). 실과 3·4·5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기수 외 6인 (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지학사.  
 김은애 외 6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지학사.  
 김정자 (1998). 제7차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학술대회자료집.

- 김재만 (1996). Dewey 진보주의 교육과 생장이론. 서울:교육과학사, pp.12~13.
- 문교부 (1963). 교육과정 해설. 교학도서.
- \_\_\_\_\_ (1965). 실과 4·5·6 교과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78). 실과 4·5·6 교과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87). 실과 4·5·6 교과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87). 중학교 가정 1·2·3 교과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3).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박도순 (1993). 교육연구방법론. 문음사, pp.170~171.
- 백은희, 채정현 (1998). 가정과 교사의 Brown에 의해 분류된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 선호도: 교육과정 모형을 결정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2), 91~103.
- 서병숙 외 6인 (1987).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동아출판사.
- 서병숙 외 6인 (1994).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동아출판사.
- 서병숙 외 6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동아출판사.
- 성화경 (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연구: 학생, 교사, 전공 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6(1), 61~72.
- 성화경 외 5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성화경 외 6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유송옥 외 7인 (1987).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학사.
- 유송옥 외 7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학사.
- 유송옥 외 7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학사.
- 유영주 외 7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문사.
- 윤인경 외 6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교학연구사.
- 윤인경 외 5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학연구사.
- 이경섭 (1988). 지식에 의한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 교육과정연구, 제7집, p.217.
- \_\_\_\_\_ (1999). 교육과정 쟁점 연구. 교육과학사, pp.186, 223~243.
- 이경섭, 이홍우, 김순택 (1990). 교육과정: 이론·개발·관리. 교육과학사.
- 이금남, 김행자, 안영희, 이남기 (1996).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10.
- 이기춘 외 4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현대문학.
- 이승신 외 4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천재교육.
- 이승신 외 6인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천재교육.
- 이승신 외 6인 (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천재교육.
- 이순원 외 4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동아출판사.
- 이영숙 외 6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지학사.
- 이용완 외 6인 (2001).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은희 (2000). 初等學校 實科 教科의 概念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은희, 전경란 (1994).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과정의 체계정립 및 필요성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43~60.
- 이인희 외 6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금성교과서.
- 이종승 (1988). TYLER 교육과정과 수업의 원리. 서울:교육과학사.
- 임애용, 윤인경 (1994).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73~92.
- 임원자 외 7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서울:교문사.
- 장명옥 외 4인 (1969). 고등학교 표준 가정일반 교과서. 어문각.
- 장명옥 외 9인 (1979).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요산문화사.
- 장명옥 외 9인 (1987).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문사.
- 장명옥 외 7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문사.
- 장정옥 외 7인 (1993).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동명사.
- 장현숙, 조필교 (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및 의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3~123.
- 전성연 (1998). 교육내용의 선결과 조직. 서울대학교 교

- 육연구소편. *교육학 대박과사전*. 서울:하우동설, pp.584-589.
- 정미경 (1994).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기초한 국민학교 실과교과 내용분석(1): 만들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133-145.
- 정성봉 외 7인 (2001).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교학사.
- 조규화 외 7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법문사.
- 주월영 외 6인 (1979).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교학사.
- 최영희 외 5인 (1998). *중학교 가정 1·2 교과서*, 지학사.
- 표경조 외 7인 (1965). *표준 중학가정 1·2·3 교과서*, 장왕사.
- 허경철 (2000).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 설정의 배경.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9~10.
- 황선자, 정영숙 (1995). 중학교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예비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35~50.
- 황윤환 (1997). 21세기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 모색: 구성주의에 기초하여. *초등교육연구*. 한국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회 학회지, 11, 27~49.
- \_\_\_\_\_ (1998). 21세기를 위한 교육과정 철학.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전 방향. 열린교육학회 '98 춘계 학술발표대회: 서울대학교, 11~28.
-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 Brown, M. M., & B. Paolucci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Bruner, J. S.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pp.114~115.
- King, A. A. & Brownell, J. A. (1966). *The Curriculum and the Disciplines of Knowledge*. New York: John Willey.
- Hirst, P. H. (1974). *Knowledge and the Curriculum*. Roudledge & Kegan Paul. London.
- Gagnè, R. M. (1970). *The conditions of learning* (2nd ed.). New York: Holt Ronehort & Winston.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Grossman.
- Piaget, J., & Inhelder, B. (1973). *Memory and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Posner, G. J. (1974). The extensiveness of curriculum structure: A conceptual schem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4), 401~407.
- Posner, G. J., & Strike, K. A. (1976). A categorization scheme for principles of sequencing conten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4), 665~690.
- Reigeluth, C. M. (1995). *Scope and sequence decisions for quality instruction*. Unpublished manuscript, Indiana University.
- Schwab, J. J. (1964). Problem, Topics and Issues. Stanley Elam(ed.). *Educational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Chicago: Rand McNally, pp.4~42.
- Taba, H. (1962).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84.